

火災豫防과 安全點檢

理事長 曹 興 萬

人類는 그 出現과 더불어 疾病, 犯罪, 戰爭 등 여러 가지 類型의 災害를 막기 위해 많은 努力을 傾注해 왔습니다.

특히 産業革命 以後의 近代工業의 登場으로 都市나 農村의 立地的 條件이 顯著하게 變化되고 工場의 增加와 大規模化, 이에 隨伴되는 人口의 增加 그리고 産業技術의 눈부신 發展은 여러 면에서 오랫동안의 傳統의인 生活方式와 意識構造에 急激한 變化를 가져왔으며 災害의 種類도 多樣해졌습니다.



사람의 生命과 財産에 被害를 주는 여러 災殃 중에서도 火災와 같이 發生頻도가 잦고 언제나 危險發生의 要因이 常存하며 威脅을 주는 災害도 없습니다.

每年 發生하는 火災原因을 分析해 본 結果 그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는 原因이 過失이란 것으로 밝혀졌는데 過失이란 不注意로 시작한 것으로서 그 結果를 豫見도 推測도 못하는 것입니다. 高度로 發達한 物質文明을 享有하면 할수록 過失이 생겨날 수 있는 潛在性은 더욱 많고 그 被害와, 被害가 미치는 惡影響은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關聯되지 않는게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高度의 産業發達과 生産性의 維持, 各種 文明利器의 계속적인 開發과 使用, 疾病의 追放 등을 幸福과 繁榮 속에서 福祉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어서의 우리의 理想과 目標로 한다면 無限한 可能性에 대한 우리의 意志는 火災豫防과 防止를 위한 努力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습니다.

一般的으로 火災는 그 發生을 暗示하는 徵候 즉 初期的 變化의 움직임이 現實적으로 싹트고 存在한다는 것을 意識한다면 火災時의 消火作業은 被害를 最少限度로 멈춘다는 極히 受動的인 措置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安全點檢이야말로 火災發生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는 積極的인 對策으로 여겨 모든 發想이나 思考의 基點을 여기에 두고 우리에게 賦課된 所任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이제 第14號의 年輪을 쌓은 本誌는 今般에는 特別 有關團體나 機關 그리고 學界로부터의 火災豫防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知見은 우리 協會의 關係者 뿐만 아니라 防火環境造成運動에 參與하는 모든 분들에 큰 도움과 參考가 되리라 믿으면서 發刊의 뜻으로 여기고자 합니다.